

## 롯데 손호영, 허벅지 부상으로 1군 제외…SSG 전영준, 허리 염좌로 이탈

등록 2026.04.24 17:36:45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손호영. (사진=롯데 제공). 2026.03.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올 시즌 타선에 고민이 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주전 외야수 손호영 공백까지 안게 됐다.

롯데는 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지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손호영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대신 외야수 김한홍을 등록했다.

롯데 관계자는 "손호영이 지난 23일 사직 두산 베어스전에서 주루 도중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에 통증을 느꼈다"며 "정밀검사 결과 미세 손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손호영은 올 시즌 타율 0.174(46타수 8안타) 2홈런 3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639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야수진에 공백이 큰 롯데로서는 손호영의 이탈이 아쉽다.

롯데는 올해 초 스프링캠프 도중 나승엽, 고승민 등이 도박 파문으로 출전정지 징계를 받아 공백을 안은 채 시즌을 시작했다. 여기에 윤동희, 김민성이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갔고, 불박이 리드오프 황성빈도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 롯데로서는 위안이다. 관계자는 "손호영이 일주일 동안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선수 보호 차원의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SSG 랜더스의 우완 불펜 투수 전영준은 허리 염좌로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지난 2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 구원 등판해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전영준은 경기를 마친 후 허리에 불편함을 느꼈다.

25일 인천 두산전에 타케다 쇼타를 선발로 기용할 예정인 SSG는 엔트리를 비워뒀다.

아시아 쿼터 일본인 투수인 타케다는 3경기에서 3패, 평균자책점 13.03으로 부진을 이어가다 지난 15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열흘 만에 복귀전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